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그림은 주인이 195명이다.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각 투자' 덕분이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재테크는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미술 작품과 음악에 투자하는 것이다.

글 편집실

적은 돈으로 미술과 음악에 투자한다!

아트테크 & 뮤직테크

재테크 새로운 주자, MZ세대

"요즘 OO의 그림에 투자했어. 그리고 내 최애 그룹 노래에도 투자하려고."

그림과 노래에 투자를 한다고? 알쏭달쏭하다. 새로운 덕질일까?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 투자라기엔 조금 멀어 보인다. 그런데 미술 작품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악에는 대체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것일까?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근 젊은 층에 새로운 재테크인 아트테크(아트+재테크)와 뮤직테크(뮤직+재테크)가 인기다. 자산을 조각내서 여러 사람이 공동투자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다. 이런 형식의 재테크를 조각 투자라고 한다.

젊은 층에서 이런 조각 투자가 뜨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입하려는 20대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 최대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바젤의 '2021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2,569명 중 56%가 MZ세대라고 한다. 한국 미술 경매 시장인 서울옥션이 올해 1분기 진행한 온라인 경매에서도 전체 낙찰자 중 MZ세대가 11%를 차지했다.

그동안 미술품은 억대를 호가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투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조각투자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어 최소 1,000원만 있어도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된 오프라인 미술 시장 대신 온라인 경매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아트테크가 뜨게 된 이유기도 하다.

좋아하는 음악과 미술품에 투자

테사,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등이 대표적인 아트테크 플랫폼이다. 이 중 테사는 앱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젊은 층이 가장 쉽게 이용하고 있다. 미술 작품 투자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회원가입 후 작품을 고른 뒤, 구매 수량을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 아트테크 플랫폼에는 작품과 함께 투자 포인트가 설명돼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투자를 결정하고 구매한 뒤에는 작품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 갤러리, 관공서, 백화점 등에 작품을 대여해주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끼리 나누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소유권을 나눠 가진다는 발상이 이상할 수 있지만, 젊은 층은 이미 공유경제, 공동구매 등에 익숙해 쉽게 적응한다.

뮤직테크도 마찬가지다. 뮤직테크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곡, 저평가된 명곡을 찾아 투자한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 투자해 이른바 덕질도 가능하다.

그래서 MZ세대 사이에서는 '덕질 테크'로 불리기도 한다. 아트테크처럼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갖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저작권 수익이 나면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뮤직테크 플랫폼에는 뮤직카우가 있다.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플랫폼으로 지난 3월 기준 누적 회원이 30만 명 정도다. 최근엔 40~50대도 '뮤직 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0~2000년대 초 음악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